

# 독일 대학 글쓰기 센터 10년

## 1. 독일 대학 글쓰기 센터 방문의 의의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글쓰기교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온 미국 유수 대학들의 글쓰기 센터 운영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 미국 대학에 비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학들은 글쓰기 센터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설사 운영되고 있다 해도 그 역사가 미국에 비하면 일천한 편이며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바로 그러한 단점이 이번 독일 대학 글쓰기 센터 방문의 동기를 제공했다. 글쓰기교실과 같이 설립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교육 프로그램이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우리보다 한 발 정도 앞서 겪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의외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창립 단계에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고, 이들로부터 현재 글쓰기교실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04년 2월 2일부터 7일까지 독일의 세 개 대학을 방문하여 글쓰기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월 3일에는 보쿰 대학의 글쓰기 센터를, 2월 5일에는 쾰른 대학의 글쓰기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소장과 인터뷰를 가졌고, 2월 7일에는 뮌헨 대학의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연구소

(DAF Institut)를 방문하여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글쓰기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보쿰 대학 글쓰기 센터의 가브리엘라 루만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대학 글쓰기 센터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쾰른 대학 글쓰기 센터의 헬가 에셀보른 역시 현재 글쓰기 교육 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물이므로, 이들과의 인터뷰는 독일 대학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 2. 독일 대학 글쓰기 센터의 현황

독일에서는 1993년에 처음으로 빌레펠트 대학에 글쓰기 센터가 설립되었다. 독일 대학에서 글쓰기 센터가 설립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 대학의 체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독일은 잘 알려진 대로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대학 입학이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독일의 대학에는 다양한 연령과 교육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게 된다. 그 대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한국의 대학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특히 졸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학점 이수와 함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때 제출하는 논문

을 Diplomarbeit 혹은 Magisterarbeit라고 한다. 이 논문은 한국 대학의 체제와 비교하면 석사 학위논문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8학기 만에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요구되는 논문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12학기가 지나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기간 등록하고도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 것은 독일 대학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주된 요인의 하나가 바로 논문 쓰기의 어려움이다. 논문 쓰기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논문 지도 교수로부터 충분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입학과 학비 면제 때문에 대부분의 독일 대학은 지도 교수가 일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대학에서 글쓰기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빌레펠트 대학에 글쓰기 센터가 설립된 이후 에센, 마르부르크, 뒤셀도르프, 보쿰, 쾰른 등 여러 대학에 글쓰기 센터가 설립되었고, 그밖에 글쓰기 교육 관련 프로젝트들이 여러 대학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 결과, 최초의 센터 설립 이후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글쓰기 센터가 확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 전 지역의 글쓰기 센터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쿰과 쾰른뿐이었고, 빌레펠트는 매년 새로운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뒤

셀도르프와 에센은 2~3년 만에 재정 지원 중단으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나마 남아 있는 글쓰기 센터 역시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어, 보쿰 대학의 경우 센터 장 1명과 파트타임 조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쾰른 대학의 경우는 센터 장 1명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뮌헨 대학의 글쓰기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연구소(DAF Institut)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일반적인 글쓰기 센터의 경우와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이와 같은 상황 악화는 독일 대학이 등록금 없이 오직 국고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글쓰기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은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쾰른 대학의 헬가 에셀보른의 설명에 따르면 3년여 동안의 지원 이후에 각종 글쓰기 관련 프로젝트들은 다른 종류의 (이를테면 미디어 관련) 프로젝트들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쿰 대학의 가브리엘라 루만 역시 보쿰 대학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데 상당한 ‘투쟁’이 필요했다고 한다.

글쓰기 센터가 잘 자리잡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독일 대학의 보수성이다. 오랜 전통을 가진 독일 대학들에서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교육 프로그램과 기관을 신설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특히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기술’을 따로 교육

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대학 구성원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속에는 미국 대학 문화의 산물인 글쓰기 센터 제도 자체에 대한 유럽 인들의 저항감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 3. 소규모 센터의 운영

필자가 방문한 보쿰 대학과 켈른 대학의 글쓰기 센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터 장의 열의와 아이디어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두 대학 모두 전교생 5~6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대학이다. 이 큰 대학들을 각각 한 명의 글쓰기 센터 장이 커버하고 있으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비하면 현재 2명의 선임연구원과 6명의 상담 조교가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글쓰기교실은 상당히 좋은 조건 속에서 일을 시작한 셈이다. 보쿰 대학의 가브리엘라 루만은 학생들의 글쓰기 문제에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상담을 진행한다. 한번의 워크숍은 대략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다루어지는 테마로는 잘 못된 글쓰기 습관의 교정, 구체적인 문제 제기의 방법, 정확한 자료 수집, 사고의 구조화, 초고 쓰기 등을 들 수 있다. 워크숍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며, 이 때 학생 간의 상호 피드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글쓰기 과제를

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워크숍에 참여한 후에 개별 상담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그만큼 워크숍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워크숍과 상담을 통해 한 학기 동안 글쓰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학생은 대략 500~600명에 이른다.

둘째, 교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 워크숍의 목표는 교수들이 스스로의 글쓰기에 대해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루만은 빌레펠트 대학 시절부터 글쓰기 교육의 개선이 우선 교수들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수 대상 워크숍을 시도해왔는데, 이러한 시도는 대다수 교수들의 냉담한 반응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한다. 루만은 현재 보쿰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소수의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에 참여한 교수들은 자기 수업을 글쓰기 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진행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켈른 대학의 헬가 에셀보른은 주로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워크숍이 주 업무인데, 그 가운데서도 상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셀보른은 일주일에 평균 20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방식은 현재 서울대학교의 글쓰기교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단 대부분의 상담 신청자는 졸업 논문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로서, 이들은 주제 선정이나 목차 구성의 단계에서 글쓰기 센터

를 방문한다. 비서를 통해 상담을 예약한 학생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논문 구상에 대하여 1시간 정도의 상담을 받는다. 상담 후에는 다음 번 상담 시간을 예약하고, 그 때까지 자기 작업을 진행하여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몇 차례의 상담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오랜 방황 없이 논문의 적절한 계획과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글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약간의 참가비가 필요한 글쓰기 워크숍은 주말을 끼고 2~3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수강 정원은 15명이다. 이러한 워크숍이 한 학기에 5번 진행된다고 한다. 워크숍에서는 주제 설정, 목차 구성, 좋은 문장과 표현, 글쓰기의 유의점 등이 다루어지며 학생들은 연습문제 풀기와 다양한 실습을 통해 글쓰기의 원리와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물론 보쿰 대학과 쾰른 대학의 규모로 볼 때, 글쓰기 센터의 활동으로 도움을 받는 학생들의 수는 미미해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두 대학의 글쓰기 센터가 모두 한 명의 센터 장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성취한 업적은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문은 그런 점에서 글쓰기교실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 4. 글을 맺으며: 글쓰기교실의 상담과 관련한 생각들

독일 대학의 글쓰기 센터 개척자들과의 인터뷰와 그들에게서 얻은 각종 교육용 자료는 글쓰기교실의 활동과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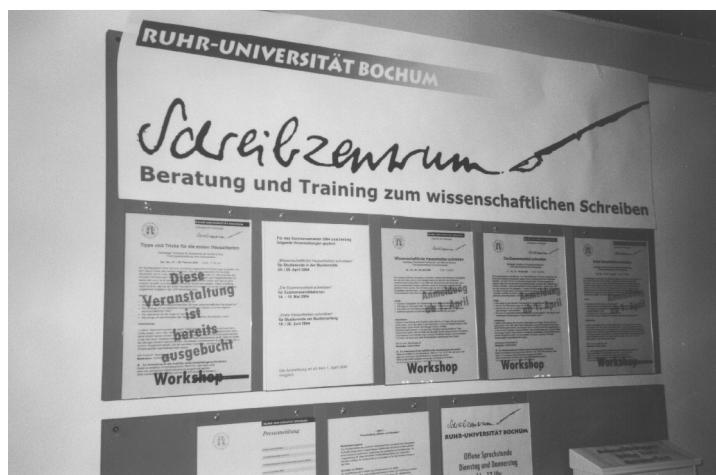
중에서도 상담의 문제를 짚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글쓰기교실에서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4~5명의 파트타임 상담조교가 한 학기에 대략 260건 정도의 상담을 해왔다. 이에 비해 두 대학의 글쓰기 센터에서는 한 사람이 그것보다 더 많은 상담을(한 학기에 300~400건) 소화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독일 대학의 경우 상담이 주로 졸업 논문을 대상으로(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반면 글쓰기교실은 주로 학부생들의 수업 과제물에 상담 대상을 국한시키므로 학기 초나 중간고사 이후 일정 기간은 거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학부 졸업 논문 통과가 요식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 수요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담 방식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독일 대학의 글쓰기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학생을 만나는 순간부터 학생의 글에 대한 상담 지도가 시작되며, 상담을 위한 준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글쓰기교실에서는 학생들의 글을 미리 받아서 읽고 첨삭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상담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주일에 10건 이상의 상담을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러한 상담 방식의 차이는 물론 독일 대학에서 졸업 논문과 같이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는 글이 상담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글의 설계에 관한 상담에서는 즉석에서 대화를 통해 조언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글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상담을 할 경우, 그래서 문장과 표현까지 지적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사전 준비 없이 상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상담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이 최소한 석사과정 대학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글쓰기교실의 상담은 졸업을 위해 학위 논문이 필요한 학생들, 실제로 제대로 된 학문적 글쓰기의 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을 상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독일 대학의 예에서도 보듯이 스스로 상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졸업 논문을 앞둔 학생들(우리 대학 체제로 환산하면 석사과정

의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계획 단계에 대한 상담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읽고 준비할 부담이 없는 즉석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상담 받은 후에 특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글의 전체적 구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는 글의 구상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글을 다써서 미리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한 기본 상담 외에, 글의 계획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면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요 상담의 가능성이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

글쓰기교실 thkim@writing.snu.ac.kr



보훔 대학 글쓰기 센터의 게시판이다. 게시판 상단에 '글쓰기 센터-학문적 글쓰기의 상담과 훈련'이라고 크게 쓰여 있고, 그 아래에 워크숍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다.